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엠바고 해제일 : 12월 12일 오전 9시(CET)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 Overseas 컬렉션 최초로 화이트 골드 소재와 컬렉션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는 블루 다이얼, 그리고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 탁월한 기술력으로 구현된 슬림한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울트라-씬 매뉴팩처 칼리버 2160으로 구동되는 투르비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베젤, 인덱스, 핀 버클에 총 85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시계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뛰어난 기술력과 진귀한 디자인으로 Overseas 컬렉션에 풍성함을 더할 새로운 투르비용 모델을 선보입니다. 화이트 골드와 블루 다이얼이라는 독창적인 조합으로 완성된 이 모델은 특히 베젤과 아워 마커 전체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자아내는 직경 42.5mm의 시계는 투르비용을 갖춘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인하우스 칼리버 2160이 장착되어 더욱 슬림한 곡선을 그려냅니다. 이 모델에는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 3개가 제공됩니다. 폴딩 버클을 갖춘 일체형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이 장착되며,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이 장착된 블루 카프스킨 레더와 러버 소재의 2가지 교체 가능한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디테일

바쉐론 콘스탄틴이 여행의 정신을 기념하는 Overseas 컬렉션에서 투르비용 모델을 2가지 새로운 디테일로 선보입니다.

이 모델에는 세련된 디자인과 어울리는 화이트 골드 소재가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골드 특유의 은은한 광채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컬렉션의 상징과도 같은 새틴 브러싱 처리된 블루 다이얼을 매치했습니다.

또한 6면 베젤부터 아워 마커까지 6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컬러 대비 효과가 강조됩니다.

다른 Overseas 모델과는 달리 이번 제품의 경우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완성되었으며, 미니멀한 라인으로 시계의 구조적인 실루엣을 한층 강조합니다. 슬림한 케이스 또한 진귀한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에 우아한 품격을 더합니다.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울트라-씬: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디자인

Overseas 투르비용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추구하는 절제되고 독창적인 미학과 완벽한 기술의 조화를 탁월한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타임피스입니다.

특히 두께가 단 5.65mm에 불과한 울트라-씬 무브먼트인 칼리버 2160을 바탕으로 완성된 슬림한 곡선은 조화로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케이스 장착 후에도 10mm를 살짝 넘는 수준의 두께를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22K 골드 페리페럴 로터 덕분입니다. 중앙 축 기점 회전이 아닌 로터의 구조를 통해 두께가 줄어들었고, 케이스백에서는 무브먼트 전체를 보다 깔끔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씬 칼리버 2160은 시계에서 더욱 화려한 무대를 펼쳐 보입니다. 마치 발레를 보는 듯한 우아한 레귤레이터의 움직임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특히 슬림한 구조는 섬세한 손길로 완성된 무브먼트 마감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기술적 위업으로서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원형 그레인 처리된 메인 플레이트, 꼬뜨 드 제네브 패턴의 장식과 더불어 투르비용 바와 마찬가지로 핸드 베벨링 처리된 브릿지, 반투명 마감이 돋보이는 휠, 챔퍼링 및 폴리싱 처리한 스크류를 비롯한 18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칼리버 2160은 하이 워치메이킹의 기술력과 진귀한 매력을 구현합니다. 2.5Hz(시간당 18,000회)로 진동하는 이 무브먼트는 시와 분을 나타내며 투르비용 캐리지에서 스몰 세컨즈를 표시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켓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하나의 시계로 연출하는 세 가지 스타일

스크류 다운 크라운을 갖추어 5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위치는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Overseas 컬렉션만의 특별한 특징을 활용하여 별도의 도구 없이 스트랩을 교체하여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폴딩 버클을 갖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이 체결된 이번 모델에 함께 제공되는 블루 러버 스트랩을 매치하여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동일한 블루 컬러의 카프스킨 레더 스트랩으로 더욱 클래식한 매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스트랩에 장착되는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은 모두 별도의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하며, 1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됩니다.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에 기존에도 바게트 컷 켄 세팅을 활용했나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는 중세 및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되었던 주얼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자체로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르 데코 사조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인비저블 세팅과 같은 새로운 기법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종의 유서 깊은 여러 타임피스에서 드러나듯, 이른 시기에 제품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타임피스에 브릴리언트 컷과 바게트 컷 켄 세팅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Overseas 모델과 동일하게 칼리버 2460으로 구동되고, 라운드 컷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559개를 정확히 그리고 조화롭게 세팅한 Traditionnelle 투르비용 주얼리 위치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는 라운드 형태의 전통적인 켄스톤의 리듬을 다채롭게 합니다. 인비저블 세팅으로 완성된 Malte 투르비용 레귤레이터에 총 19개의 화려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565개를 장식하여 더욱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Overseas 시계에 새롭게 바게트 컷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의 디자이너와 켄 세팅 장인들은 Overseas 컬렉션의 세련된 매력과 어우러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게트 컷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얼리 분야에서는 58개의 면을 갖춘 브릴리언트 컷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와 달리 25개의 면을 갖춘 바게트 컷의 경우 보다 옛지이고 입체적인 룩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보다는 순도를 강조합니다. 직각을 이루는 구조, 평평한 표면과 날렵한 가장자리의 바게트 컷은 Overseas의 구조적인 디자인을 보다 돋보이게 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바쉐론 콘스탄틴의 칼리버 2160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 5.65mm에 불과한 두께로 시장 내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무브먼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칼리버 2160은 진정한 기술적 위업으로 손꼽힙니다. 2018년에 이 칼리버를 개발했던 메종의 워치메이커에게 까다로웠던 부분은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내에 투르비용 레귤레이터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구조는 2가지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로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투르비용 캐리지를 통합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무브먼트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르비용 자체의 구조를 먼저 작업한 다음 높은 효율을 보장하는 페리페럴 로터 와인딩 시스템을 설계하여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커들은 울트라-씬 칼리버 2160 제작과 수반되는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모든 장식 디테일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Overseas 투르비용은 어떤 고객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나요?

하이 워치메이킹의 애호가이자 진귀한 감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이 타임피스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기술적인 시계, 그리고 더욱 포멀한 감각을 선사하는 모델의 특징 모두를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제는, 1970년대 초기 모델들을 벤치마킹한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타임피스가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시계들은 기술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디자인에서 주얼리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는 이와 같은 기대를 모두 충족하는 타임피스입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은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위치를 통해 여행과 탐험의 가치를 지향하는 Overseas 컬렉션에 2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Overseas 블루 다이얼과 화이트 골드의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라는 새로운 조합, 그리고 베젤, 아워 마커, 핀 버클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입니다.

슬림한 곡선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투르비용을 탑재한 두께 단 5.65mm의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인하우스 칼리버 2160으로 구동됩니다. 2.5Hz로 진동하는 이 무브먼트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시간과 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투르비용 캐리지에서 스몰 세컨즈를 표시합니다. 시계와 함께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블루 러버 및 카프스킨 레더의 스트랩 2개가 추가로 제공되며, 이 스트랩에는 별도의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한 잼 세팅 핀 버클이 장착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VERSEAS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깃든 우아한 품격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디테일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디자인

하나의 시계로 즐기는 세 가지 스타일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Overseas tourbillon high jewellery

Reference	6007V/210G-B955
Calibre	216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peripheral rotor 31 mm (1 3/4") diameter, 5.65 mm thick Approximately 80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188 components 30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on tourbillon carriage (color screw) Tourbillon
Case	18K white gold 42.5 mm diameter, 10.39 mm thick Bezel set with 60 baguette-cut diamonds -2.60cts, invisible setting Soft iron casing ring ensuring anti-magnetic protection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t tested at a pressure of 5 bar (approx. 50 meters)
Dial	Translucent blue-lacquered, sunburst satin-finished base with velvet-finished flange 18K white gold hour-markers set with 9 baguette-cut diamonds -0.28ct, closed setting 18K white gold hours & minutes hands highlighted with blue Super-LumiNova®
Bracelet	18K white gold, half Maltese cross-shaped polished and satin-brushed links. secured by a 18K white gold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comfort-adjustment system.
Additional straps/ clasp	Blue calfskin leather strap with grey stitches Blue rubber Interchangeable 18K white gold pin buckle set with 16 baguette-cut diamonds -0.73ct, invisible setting
Total diamond- setting	85 baguette-cut diamonds, invisible setting, for a total weight of approx. 3.61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